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사도로 부름 받다



지난 1월 9일 대관장단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일 휴비 브라운 장로의 서거로 십이사도 평의회에 공석이 생겼으므로 그가 부름받은 것이다.

헤이트 장로는 4월

연차 대회와 1976년도 1 / 4분기 동안 각 지역에서 갖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1906년 9월 2일 아이다호주 오글리의 한 농촌에서, 한 때 주 상원 의원이었으며 오글리 제 1와드에서 15년간 감독으로 봉사한 은행가 핵터 케이렙 헤이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에서 경영학사의 학위를 받고 24세 때에 루비 올슨 자매와 신전 결혼을 한 후 백화점 계통의 사업에 종사했으며, 2차 대전시에는 해군 장교로 임관되어 탁월한 업적으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특별 표창을 받기도 했다.

후에 캘리포니아주의 팔로 알토 시 의원을 거쳐 시장이 되었는데 1963년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고 시장직을 사임했다.

그후 교회 신권 선교사 위원회의 위원,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하다가 1970년 4월 6일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성인 협의 위원회 부위원장, 신권 지도자 위원회와 교

사 자질 향상 위원회 관리 책임자 군인 관계 위원회 관리 책임자 등을 역임한 그는 현재 멜기세덱 신권 관리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매우 놀랐으나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한다. “저는 교회에서의 지위를 탐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떠한 부름이라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형제들이 많음을 생각할 때 왜 제가 부름을 받았나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예언자께 여쭙어 보지는 않았읍니다.”

지난 해 2월 서울 스테이크 대회에 총관리 역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던 헤이트 장로의 생애는 충만하고 보람찬 것이었으며, 또한 새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이 있다.

## 호주 등 4개국에서 지역 대회 개최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 교회 프로그램의 새롭고도 놀라운 모험”이라고 김볼 대관장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제도에 거주하고 있는 106,000 명의 성도들은 1976년 2월과 3월에 걸쳐 8개의 지역 대회를 맞게 되었다.

대관장단은 호주에서 3차례의 지역 대회를 갖고 뉴질랜드, 사모아, 피지, 통가, 그리고 타이티에서 각각 한 차례씩의 지역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 대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아피아, 사모아 ... 2월 16일~18일, 사모아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을 위한 모임. 모임은 서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 근교에 있는 서 사모아 교회 대학에서 열리며,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4차의 총회, 그리고 특별 그룹 분반이 있을 예정이다.

해밀턴, 뉴질랜드 ... 2월 20일~22일,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을 위한 모임, 모임은 해밀턴 근교, 템플뷰에 있는 교회 대학에서 열리며,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4차의 총회 그리고 특별 그룹 분반이 있을 예정이다.

수바, 피지 ... 2월 23일, 피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1차의 총회가 수바 문화관에서 월요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다.

뉴칼로파, 통가 ... 2월 24, 25일 통가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을 위한 모임, 4차의 총회와 문화의 밤 행사가 교회 리아호나 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퍼어드, 호주 ... 2월 27일, 퍼어드에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 회원을 위한 모임. 금요일 오전에 퍼어드 스테이크 센터에서 1차의 총회가 있을 예정이다.

멜본과 시드니에서 동시에 2월 28일, 29일에 걸쳐 지역 대회가 있을 것이다. 멜본에서는 4차의 총회와 특별

구분 분반 모임이 페스티벌 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모임은 아델라이드 스테이크, 멜본 페어필드 스테이크, 멜본 무라빈 스테이크와 아델라이드 선교부, 멜본 선교부의 회원을 위한 모임이다.

비슷한 모임이 브리스베인 스테이크, 파라마타 스테이크, 시드니 그리니치 스테이크, 시드니 남 스테이크, 브리스베인 선교부, 시드니 선교부의 회원을 위하여 열릴 예정이다.

파피테, 타히티... 3월 1일, 2일 타히티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를 위한 모임 4차의 총회와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린다.

## 복지 농장 매입

지난 2월 15일 서울 스테이크 대회에서 핑글리 장로님은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복지 농장에 가서 땀 흘리며 일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다. “스테이크 복지 농장은 주님의 농장입니다.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농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을 비롯해서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자들이 금식 기도와 온갖 심혈을 기울인 끝에 매입하게 된 복지 농장은 판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논은 5,000평이고, 밭은 4,000평이나 된다.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1976년에 들어 처음 갖는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방문 총관리 역원인 고든 비핑글리 장로를 감리자로 모시고 서울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개최되었다. 14일에 개최된 스테이크 신권역원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 옥환 형제는 “일의 순서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행한다”라는 제목으로, 제3와드의 김 종열 감독은 “나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모든 지도자에게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가진 스테이크 대회 역원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이 호남 부장은 “가족” 모임을 권고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책임에 관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김 창선 형제는 “어떻게 개인 역사 기록 작성이 가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개인 역사 기록과 기억의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방문 총관리 역원인 핑글리 장로는 바쁜 여정 중에도 자신의 경험담을 매일 저녁 일지에 적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담을 실은 기억의 책이나 개인 일지라고 말씀하셨다.

15일에 개최된 일반 총회에서 총관리 역원과 스테이크 역원에 대한 지지와 역원 변경에 대한 지지도 물었다.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될 당시 지부로 머물렀던 신촌 지부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번 대회 중 와드로 승격되었으며 지부장단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감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제9와드의 감독으로 전 지부장인 박 정욱 형제가, 감독단 제1보좌로 조 신환 형제가, 제2보좌로 최 동일 형제가 각각 지부 회원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12명의 장로와 3명의 대제사, 7명의 철십인이 탄생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의 영적인 말씀 순서가 끝나고 감리자인 핑글리 장로께서는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복지 농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마련하도록 수고한 교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지 농장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업처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두 차례로 나뉘어 개최된 이번 대회에 참석한 성도의 수는 오전에 609명, 오후에도 629명이었으며, 시종 조용하고도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모임을 끝냈다. 방문 총관리 역원인 핑글리 장로 부처는 16일 다음 대회 지역인 홍콩으로 출발하였다.

## 신촌 지부, 와드로 승격됨

지난 2월 15일 서울 스테이크 대회, 오전 총회에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은 핑글리 장로님의 승인을 받아 신촌 지부를 서울 스테이크의 제9와드로 승격시키게 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대회에서 박 정욱 신촌 지부장은 제9와드 감독으로 지지받고, 강한 간증을 드렸다. 박 감독은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기 위해 온 마음으로 내조한 부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든 성도는 제9와드의 승격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빌었다.

## 전 영준 형제, 서면 지부 지부장으로 부름받음



서면 지부 성도들은 지난해 10월 12일 지방대회에서 전 영준 형제를 지부장으로 지지하여 새로운 지부장을 맞게 되었다.

전임 안 재석 지부장의 뒤를 이어 새 지부장이 된 전 영준 형제는 1967년 9월에 개종하여 줄곧 동구 지부에

소속하였으나 이번에 서면 지부 구역으로 이사함에 따라 바로 지부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부름에 많이 당황하였다고 말했다.

전 형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니파이의 간증 대로 주님께서는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해 두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주었다.

## 부산 지방부 주최 음악회

지난해 9월 30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부산 지방부 주최로 음악회가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지방부 회원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모임에는 존스 장로, 한 보희 자매, 배 정숙 자매의 피아노 독주와 김 영기 형제의 바이올린 독주, 정규분 자매(소프라노) 배 인숙 자매(앨토), 임 규선 형제(바리톤)가 각기 독창을 했으며 초등협회, 상이회 및 청소년의 합창, 중창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 부산 지방부장인 이 병학 형제는 “오늘 이러한 음악회를 개최한 것은 성도들과 진리를 알리는 구도자에게 큰 축복입니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성황리에 끝났으며 참석했던 성도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교회 발전과 회원들의 성장에 관하여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 부산 지방 대회 개최

지난 1월 10일 부산 지방부에서는 한 인상 선교부장님의 감리하에 부산 지방 대회가 열렸다.

약 4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모임에서는 개인 역사 기록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개인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공감을 느꼈다.

특히 최근에 개종하여 만 2개월 만에 물몬경 200여권을 이웃과 친지에게 배부한 강 업 형제는 “모든 사람에게 물몬경을 읽히자”고 권고하였으며, 그는 약 20여년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앙 생활에서 자신을 돌이켜 확고부동한 간증을 가진 말일성도로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간증을 드렸다.

## 구미 지역 초등협회 활동

지난해 11월 9일 대구 지방 대회에 참석했던 경북 구미 지역의 자매들(구도자)은 이 대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큰 기쁨과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인생의 참 기쁨을 지상의 작은 천국인 가정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는가를 초등협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초등협회가 구미 지역에 조직되기를 갈망했다.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이 지역에 초등협회를 조직하기 위해 76년 1월 하순에 이미 박 숙희, 김 동래, 두 자매 선교사를 파견하여 준비 중

에 있다. 그들은 현재 구미 지역의 구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협회를 조직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바쁘다.

## 이리 지부 건물 구입

지난해 8월 11일에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가 이리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한 이래 이제 한 가족과 두 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고,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구도자들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적절한 장소와 건물이 없어 주일학교라든지 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그 지역의 성도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 포항 새로운 선교 지역

작년 8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대회에 참석한 후 개종하게 된 포항의 김 정숙 자매는 지난 해 11월 교회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15명의 성명과 주소를 파악하여 한 인상 선교부장을 방문하고 포항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 주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일 선교사 4명이 포항에 도착하여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으며 오는 2월 28일에는 침례식을 가질 예정이다.

포항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지역 관리 선교사인 웨인 팔머 장로를 비롯하여 앨린 워커 장로 최 중호 장로 캐빈 런드 장로 등 4명이다. 이들의 선교 활동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미 일요일 예배를 위한 건물도 구했다. 한 인상 선교 부장은 곧 포항 지부를 조직할 준비를 갖추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님의 우리”안에 들어 있지 않은 양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땅으로 또 다른 커다란 첫발을 내딛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 고아원과 병원을 방문함

지난 해 성탄절에 부산 선교부 선교사 131명은 부산 지역의 여러 고아원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성탄절 캐럴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며 그들의 사랑과 간증을 나누었다. 어떤 고아원에서는 선교사들이 보여 준 사랑에 감동하여 전 직원이 교회에 관해 공부하기를 원했다. 사랑과 간증을 나누고 봉사하며 많은 구도자를 구할 수 있었던 지난 해 성탄절은 선교사들에게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즐거운 성탄절이었다.

12월 24일 오후에는 부산 선교부의 모든 선교사가 부산의 중심가에 나아가 성탄절 캐럴을 부르며 구도자 소개 카드를 모을 수 있었다. 성탄 메시지가 실린 5000 여장의 안내장도 광복동에서 나누어 주었다.